

황인의 '예술가의 한끼'

# 궁핍한 화가 남관, 파리에선 안 먹는 소뽕 고아 먹고 버터



황인  
미술평론가

1966년, 이듬해 생소한 남프랑스의 망통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망통 현대회화 비엔날레에서 화가 남관(1911~1990)이 망통시 1등상을 받아 일약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대통령상은 스페인 작가 타피에스, 망통시 그랑프리는 소련 출신 세르게 폴리아코프가 받았다. 세계 미술계가 인정하는 큰 상을 남관이 수상했다. 천하의 피카소는 초대작가였다.

1966년이라면 한국의 대부분 화가가 국내에 갇혀 있거나 기껏해야 서울과 도쿄 사이를 오가는 로컬 아티스트로 만족할 때였다. 같은 시기에 남관은 미술의 분향 프랑스에서, 축구로 치자면 프리미어 리그급의 무대에서 세계적인 화가들과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섰다. 남관이 당시 세계 최정상급 화가로 활동한 유일한 한국인이었음을 그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은 거의 잊어버렸다.

### 파리 떠나는 김환기에게 '사생결단' 약속

남관은 경북 청송 출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그림 실력을 눈여겨본 교장 선생이 부친에게 아들의 조기유학을 권하며 추천서를 썼다. 소년 남관의 나이 14세 때였다. 일본에서 중학교를 마친 남관은 도쿄의 태평양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해방 후 귀국해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일본식 아카데미즘의 답답한 미술수업에 대한 청년 시절의 불만이 중년의 가슴속에 여전한 남아 있었다. 결국 늦은 나이를 무릅쓰고 프랑스 유학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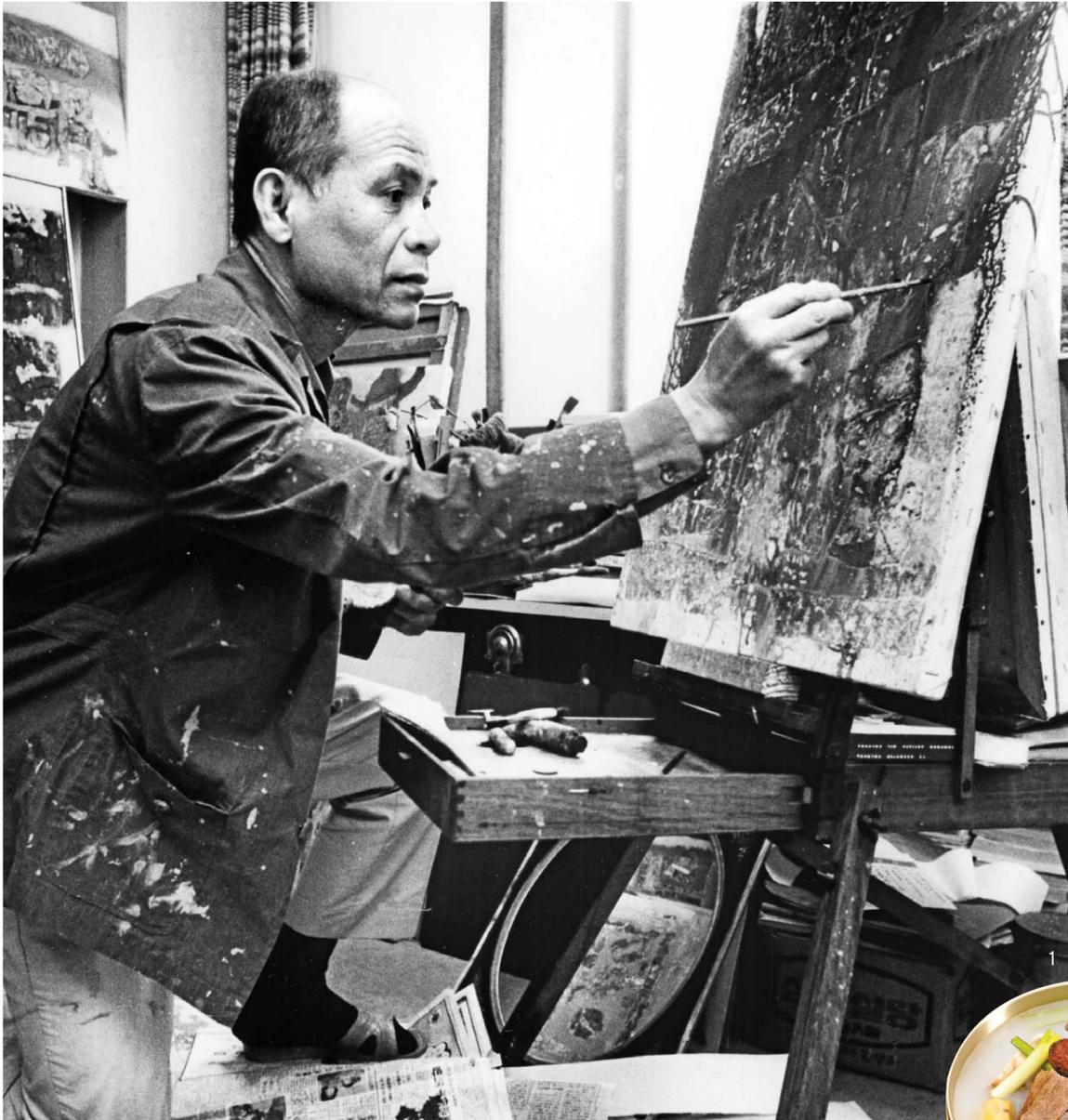
1954년 미도파화랑에서 열린 도불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파리에 가 보니 길거리에는 아직도 몇 개의 가스등이 남아 있었다. '아카데미 그랑 드라 쇼미엘'에 학생으로 적을 뒀다. 꿈꾸던 파리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불전에서 팔린 그림값을 지인에게 맡겨 매달 50달러씩 파리로 송금하게 했다. 돈을 맡은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날려 버렸다. 또 다른 지원의 약속도 있었는데 다 끊겼다. 힘든 생활이 시작됐다. 생활의 방도를 찾는 데 시간과 정열을 사용하는 대신 죽든 살든 그림만을 그리기로 했다. 파리 도착 직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한 캔버스와 물감을 아낌없이 작품제작에 다 쓰기로 했다.

몽파르나스의 셋집은 반지하였다. 우기인 겨울이 되면 습기로 온 집안이 흥건했다. 아침에 벽에 손을 대 보면 물이 주르르 흘렀다. 침대 밑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 벽돌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캔버스를 세워야만 그림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렸다. 커피 한잔의 시간도 아까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했다.

그런 가운데 1959년, 3년여의 파리생활을 청산한 김환기(1913~1974)가 파리를 떠나기 전날 몽파르나스 남관의 화실로 찾아왔다. 파리 화단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귀향하는 김환기의 표정은 우울했다. 자신은 비록 파리를 떠나지만 남관만큼은 끝까지 파리에 남아서 배를 물어 주기를 원했다. 남관은 파리에서 작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사생결단의 다짐을 약속했다.

남관이 장안한 대표적인 조형기법으로 데콜라주가 있다. 물감이 아닌 인쇄된 종이, 천, 얇은 철판 등을 캔버스 위에 풀로 붙이는 걸 콜라주라 한다던데 데콜라주는 반대의 프로세스로, 불린 이물질들을 떼어내는 작업이다. 작업실의 축축한 물기가 인류가 풀



라주하듯 쌓아 온 역사의 시간을 불렀다. 남관의 의식은 통통 불린 시간을 한 겹씩 벗겨 내며 먼 과거로, 아득한 원형의 세계로 돌아갔다. 서양미술은 대체로 건축적이다. 건축은 시간의 층과 등가라 할 수 있는 물질의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공학이다. 남관의 작업은 건축의 반대개념으로 진행됐다. 고고학자가 지층을 벗겨 내듯 시간과 물질의 층을 한 겹씩

벗겨 내려가면서 필경 모든 존재의 시원에 다다르게 되는 작업이었다. 그 반건축적인 작업이 그가 장안한 데콜라주의 본령이었다. 강건한 서양적인 재료에 기반하면서도 이른바 동양적인 사유의 속살에 이르는 점이 남관 작품의 매력이었다.

1966년은 즐거운 일이 많은 한 해였다. 망통 현대회화 비엔날레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파리 정부에

서 제공하는 18구의 오르도네의 작업실에 입주할 수가 있었다. 예술인을 위한 작업실 전용 아파트였다. 5층의 꼭대기 층은 사실상 복층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층들에 비해 층고가 2배나 높고 채광이 좋아 대작을 제작하기에 그만이었다. 어떤 예술가들은 부분적으로 복층으로 개조하여 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습기로부터 해방돼 좋았다.

남관은 음식을 타박하는 체질은 아니었다. 치즈 말고는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없이 입맛이 무덤덤한 편이었다. 파리에 가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기에 싸구려 빵과 치즈로 버텼다. 그의 건강을 지켜 준 건 우족 곰팡, 소꼬리 곰팡이었다. 다행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소뽕을 고아서 먹는 문화가 없었다. 그 덕에 가격이 매우 싸다. 남관은 우족이나 소꼬리를 사다가 푹 고아서 곰팡을 만들어 며칠이고 먹었다. 작업실은 파리의 원조 소꼬리 곰팡 집을 방불케 했지만 작품제작을 위해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식단이 부실했고 영양 공급이 불균형적이었다.



1 1976년 화실에서 작업 중인 남관 화백. 2 파리 시절 남관이 즐겨 먹었던 소꼬리 곰팡. 3 '환영', 캔버스에 유채, 1984, 130.3 x 193.9 [사진 남관 유족 제공]

66년 망통 비엔날레서 깜짝 1등  
당시 초대작가엔 천하의 피카소  
50년대 44세에 늦깎이 파리 유학  
반건축적 데콜라주 조형기법 창안  
반지하 방서 빵·치즈로 버티기도  
유학은 아들과 함께 작업·식사

1968년 남관은 서울로 돌아온다. 10년 가까이 흥익대 교수로 지냈다. 부양동에 작업실을 차렸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파리의 작업실로 돌아가 작업했다.

1979년에는 흥익대에서 도예를 전공한 아들 윤이 파리로 유학을 왔다. 부자간에 오르도네의 작업실을 함께 쓰게 됐다.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동거가 시작됐다.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 남운(1952-)은 요리하기를 좋아했다. 매일 저녁 국적 불명의 창작요리가 등장했다. 아들은 생선, 닭, 소시송 등 요리재료를 구하러 시장을 다녔다. 작업실에 오랜만에 생활감각의 활기가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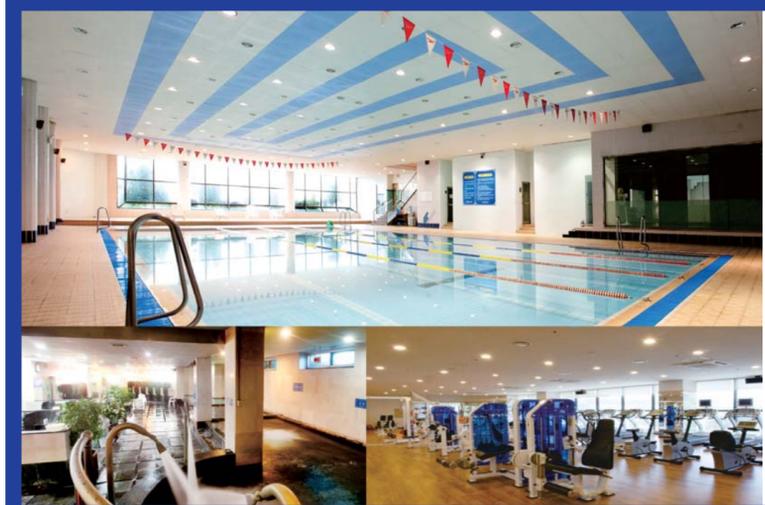
### 시간의 층 한 겹씩 벗겨내듯 동양적 사유

저녁상 앞에서는 부자시간의 대화가 펼쳐진다. 남관은 술을 그리 즐기지 않았다. 반주로 와인도 조금 마실 뿐이었다. 대신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말이 대화지 미술계 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의 개진이나 교육에 더 가깝기 마련이었다. 남관은 아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 그만큼 아들 앞에서 할 말도 많았을 터이다. 얼마 후 남관은 근처의 아파트에 방을 따로 하나 얻어 나가면서 낮에만 작업실을 사용했다. 밤에는 아들이 와서 작업실을 사용하고 잠을 잤다. 다행히도 저녁식사는 부자가 함께했다. 나중에는 남운도 15구의 파리고등응용미술 학교 근처의 아파트로 집을 구해 나갔다. 두 사람은 주말에 작업실에서 만나는 걸로 목제가 이루어졌다.

1985년 평창동에 작업실 겸 살림집을 지었다. 2층 높이의 층고를 확보한 큰 작업실이 마련됐다. 1990년 봄이 되자 남관은 기관지염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 먼저 간 김환기의 모습이 자주 남관의 눈앞에 나타났다. 남관은 몇 번이고 환기를 부르다 숨을 멈추었다. 그 응답일까. 20년 후 환기미술관에서 남관의 탄생 100주전이 열렸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하고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문학·무용·음악 등 다른 장르의 문화인들과도 교류를 확장해 나갔다. 골목기행과 흥대 앞 게릴라 문화를 즐기며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음식을 좋아한다.



## 회원 모집

#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연회비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10% 할인
- 객실 이용시.....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